

비나는 사람들

8

2023년 8월 발행 Vol.6 탐파 새빛교회 이야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3)**

김섭리 목사의 신앙 컬럼(7)

삶을 회복시키는 습관들(4): 정의를 이루어 가는 습관

새빛교회의 모든 예배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즉 약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정의라는 표현은 주로 정치적인 성향으로 생각해 왔고, 유독 한국 교회는 그 부분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파나 우파라는 프레임에 갇혀 성경적인 정의의 의미를 폐기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호에는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네 번째 습관, 정의를 이루는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오던 것과는 다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적인 정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조가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또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계속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가장 큰 중심 원리는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모든 피조물과도 이루어져 있는데,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의롭다' 또는 '공의(righteousness)'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공의는 인간의 탐욕에 의한 선택으로 깨어졌고, 그 결과로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두어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다스림의 방식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힘의 원리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며 힘으로 정복하기 위한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깨어진 인간이 얼마나 최악으로 가득 찼는지, 그리고 그 깨어진 공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과 행위를 정의(justice)라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정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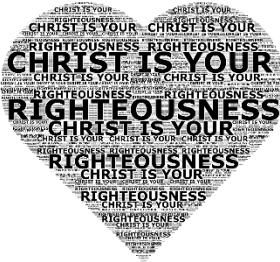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반면, 인간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가난한 소외계층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그리스도의 삶은, 노예해방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 흑인 인권운동을 펼쳤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의식구조의 개혁을 외쳤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눅 4:17-18). 억눌린 사람들, 주린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며 (시 146:7-9), 그들을 사랑하여 떡과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신 10:17-18).
주님을 찬양하려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렘 22:16),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암 5:21-24).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의를 위한 삶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의 가난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가난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신 15:11). 우리 교회의
예배에 정의와 회복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너희 섬김이 곧 나를
향한 예배이다 (마 25:40).”
하나님께서 탬파지역에 우리
새빛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교회 소식

제자훈련 '구약의 맥을 잡아라'

정부자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12 주 과정의 '구약의 맥을 잡아라' 제자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수요일 팀은 마지막 수업 후 오찬을 함께 하였다.



특별 저녁 금식기도회

7월 10일부터 7월 21까지 교회 분당에서 2주간 특별 저녁 금식 기도회가 있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한 가운데 방석위에 무릎을 꿇고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를 올렸다.



SEED Youth Summer Retreat(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Kissimmee, Florida 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다. 올해에는 16 명의 학생들과 카운슬러 9 명을 포함한 총 25 명이 참여하였다. 초청강사는 North Carolina 의 한마음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Daniel Cho 전도사이다. 성경공부를 비롯한 물놀이 이외에 짜인 스케줄에 따라 모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성도 소개

새빛교회 협동전도사이신 정부자 전도사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1. 전도사님에 대하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제해온 다른 성도들로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전도사’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감사, 울보’ 전도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예쁜 할머니 전도사, 정부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23 회), 서울 지하철 2 호선 방배역 2 번 출구에 있는 방배 총신대학원(현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 3 년을 수료하고, 고등부 청년부 전도사, 장년 성경공부 인도, 전임 전도사로 23 년 동안 사역하고 은퇴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딸 두명과 손주 3 명이 있습니다.

2. 탬파에 오시게 되신 계기 그리고 새빛교회를 오시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오하이오주의 신시네티에서 큰 딸집 옆에서 살다가 큰 딸 가족이 이곳 탬파로 오게 되면서 함께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지금은 큰 딸 가족과 함께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South Tampa 에 살고 있습니다. 새빛교회로 오게 된 것은 오하이오에 계신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고 믿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3. 가장 즐겨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이곳 텀파는 햇빛이 참 좋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찬송을 들으면서 날마다 동네 한 바퀴씩 걷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4. 삶 속에서 중요하게 품고 계신 성경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도바울이 순교했던 깊은 로마감옥을 방문하면서 유언서로 남기신 디모데후서 1 장 14 절의 말씀(“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을 나의 삶의 중요한 말씀으로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즉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뜻하는데, 복음을 Keep 하고 Protect 하는 일에 힘쓰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디모데후서 2 장 1 절과 2 절에 쓰여 있습니다.

5. 내 삶 속에서 가장 기뻐할 때와 가장 슬펐을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슬펐을 때>

가정형편 때문에 (양육하며 돌볼 수 없었던 가난)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야만 했었을 때입니다.

<가장 기뻐할 때>

거의 6 년이 지난 후 큰딸이 대학 졸업식을 할 때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쇼핑몰에서 ‘프레즐’ 사먹으며 서로 웃었을 때입니다.



6.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인생 실패의 자리에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울고 있을 때

7.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과 하나님을 알고 난 후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

우물가의 여인처럼 늘 목마름. 교만, 선민의식으로 가득함.

<하나님을 알고 난 후의 삶>

자족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저를 안식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8.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또는 성경구절은 무엇인가요?

찬송가: 150 장 '갈보리산 위에'

성경본문: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 9:23)

9. 5 년 이후의 나의 모습은?

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성경 본문으로 답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늘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 92:12-15)

10. 새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전 10:31-33)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함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 새빛교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교회 사역팀 소개

2023 년 중점사역인 3 개 사역원에 속한 25 개 사역팀에 대한 소개입니다.

새빛교회 팀사역은 예수님과 사도바울의 팀사역을 그 모델로 삼습니다.

팀사역은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같은 비전과 핵심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새빛교회 새가족팀

새가족팀은 새빛교회 3 개의 팀 사역원 중 예배/찬양 사역원에 속해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바탕으로 매주 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환대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새가족팀은 팀 내에서 팀원의 역할이 세분화 되어있어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보살피며, 교제를 통하여 편안함을 가지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새가족 훈련 4 주 과정을 마친 뒤 등록이 가능합니다.



(새가족팀원: 왼쪽에서부터 김종월, 최성미, 오화영 권사님, 박혜영, 팀장 김영주

사진에 나오지 않으신 팀원: 백정훈, 유영란, 이동화, 조지은)



(상반기 새가족: 왼쪽부터 나이삭, 김나현, 남지혜,
이정옥, 안경열, 홍숙자, 배지혜, Ed Bae)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1 월~6 월) 많은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새가족팀은 매 주일이 바쁘지만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새가족팀이 방문자들을 섬기고 있지만 크게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새가족팀의 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보며 함께 가고 있다는 것, 마주치는 방문/새가족들을 환대하는 모습 속에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는는 새로이 가족이 되신 우리 새가족분들께서도 앞으로 오실 또 다른 방문/새가족 분들께 교회에서 받은 환대와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모두가 감사하는 삶, 나아가서 함께 회복되고 하나되는 새빛의 가족이 되길 우리 새가족팀은 소망합니다.

간증

저는 성인이 된 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여 성경책을 읽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계관을 깨야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통독을 다짐하며 성경책을 펼쳤으나 낯선 인물들과 역사들을 보며 의구심을 가지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구약을 다 읽지 못한 채 성경책을 닫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을 낳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게 되면서 스스로 많이 부족함을 깨달았을 무렵 성경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고 10 주 동안 정말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백지였던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3 가지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로 나뉘어 구약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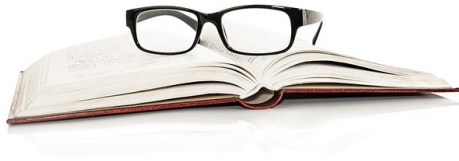
두 번째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번영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하며 몰락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있었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끝을 본 현재의 저도 돈과 명예 같은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이 성경공부를 통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갖고 있던 마음속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투정부리던 제가 이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주신 정부자 전도사님께, 새빛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나현 성도



성경시대에는 어떻게 여행했을까?

성경에는 여행을 주제로 한 일화가 다수 등장한다. 이스라엘 국내 여행과 이집트나 소아시아 육로 여행, 그리고 배편을 통한 그리스와 로마로의 장거리 해상 여행까지 다양하다.

고대의 여행은 무척 고단할 뿐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여행의 낭만을 위한다면 오히려 집에 머무는 게 더 즐겁고 안전했다. 가족은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는 강력한 공동체라서 타국에 대한 동경이 파고들 여지가 없었다. 대대로 가족이 터 잡고 생활하는 지역을 벗어나 여행하는 것은 두렵고 무모한 일탈에 가까웠다.

아브라함의 대가족이 처음에는 갈대아인의 우르, 또다시 하란을 뒤로한 채 가나안으로 향한 것은 한 집안 전체의 운명을 건 모험이었다(창 12:1-5). 과도한 욕심으로 형에게 쫓겨 메소포타미디아의 하란까지 홀로 먼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여행 역시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창 28:21-22). 그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다가(욘 1:3), 탕자가 재산을 상속받아 먼 나라에 갔다는 이야기의 설정(눅 15:17-19)을 접하는 순간 그들의 예정된 불운을 떠올리게 된다.

불편한 도로는 물론 넉넉하지 않은 식수와 식량, 들짐승, 그리고 외진 곳을 지키고 있다가 행인의 재산과 목숨을 노리는 강도 때문에 이국땅에서 영영 불귀객이 될 수 있었다. 나랏일이나 사업, 국가적 건축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것 말고는 장거리 여행을 피했다. 넓은 세상을 둘러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여행은 이븐 바투타(1304-1368) 같은 여행자가 등장한 14 세기까지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여행 리포트는 독보적이다. 47 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된다. 시리아의 안디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크리스티아노스’ Christianos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곳으로,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40 곳이 넘었다.

바울 일행은 지중해 동쪽 섬 키프로스, Cyprus 를 거쳐 갈라티아 남부 지역(행 13:14-14:26)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제 2 차, 3 차 선교 여행까지 이방인의 땅, 그러니까 현재의 튀르키예와 그리스 일대를 대략 15 년간 누볐다. 학자들은 바울의 여행 거리를 대략 15,000km (9,320mile)로 추산한다.

도보 여행자가 띄약벌에서 하루 30km (18.6mile)를 걷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기껏 나귀와 쪽배의 도움으로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바울은 전도여행에서 겪은 어려움을 코린토스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에 소상하게 기록했다. 덕분에 우리는 바울은 물론 성경시대에는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겪었을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고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잠을 지새우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행 11:24-27. 새번역)

(출처: 더미션, 유재덕 교수의 바이블 디스커버리)



색다른 라면 레시피

하지원의 라임로즈마리 라면

방울토마토의 감칠맛과 라임의 신맛, 풋고추의 매콤함과 로즈마리 향까지 더해진 이국적인 향으로 개운하면서도 중독성이 있다. 함께 유튜브를 촬영한 제작진도 맛 평가에서 100 점을 주었다.

기본재료: 신라면 블랙 1 봉, 생수 550m, 방울토마토 · 풋고추 · 편 마늘 적당량
씩, 로즈마리 한 줄기, 라임 ½개 얇게 편으로 썰기, 카놀라유 · 올리브유 · 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 법:

1.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썰고 고추는 어슷하게 썬다.

2.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편으로 썬 마늘을 볶다가 마늘 향이 나기 시작하면 준비해 놓은 ①의 토마토와 고추를 넣는다.



3. ②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골고루 볶다가 토마토를 주걱으로 눌러 터트려 향을 낸 뒤 생수를 붓는다.

4. ③이 끓으면 라면의 건더기수프와 가루수프를 넣는다. 이때 가루수프의 양은 취향에 맞게 조절한다.

5. 팔팔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고 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로즈마리와 후춧가루를 넣는다.

6. 마지막으로 반으로 잘라 얇게 편으로 썰어 놓은 라임을 넣고 불을 끈 뒤 그릇에 담는다. (출처: 여성조선)

한글성경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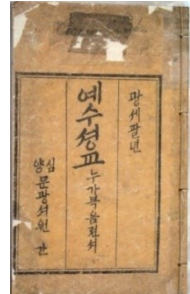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보통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 후에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 성경이 먼저 번역된 특이한 케이스다.

본디 히브리어로 적힌 성경은 약 기원전 2 세기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됐다. 역사상 최초의 번역본이다. 예수의 탄생과 함께 서술되기 시작한 신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저술됐다.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작성된 신구약 성경은 당시 성직자들이 읽도록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그 후, 인쇄술을 발달과 종교개혁으로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으며, 1390 년 성경 전체가 영어로 번역되었다. 이처럼 긴 성경 번역의 역사 속에서 한글성경은 비교적 최근인 1800 년 후반이다.

한글성경이 완역된 지 이제 110 년이 넘었다. 한글성경은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을까? 한글성경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본다.

1. 최초의 한글성경

만주에서 사역하던 스코트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와 존 매킨타이어는 조선인 이응찬, 김진기, 이성하, 백흥준, 서상륜 등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번역했다. 조선인들이 먼저 중국어 신약(1852)을 한글로 번역하면, 선교사들이 헬라어, 영어성경을 대조번역해서 1882 년 출판했다. 이것이 한글 최초의 성경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다. 이 번역본에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기했으며, 조선인 번역가들 때문인지 평안도 사투리가 사용되고 (하나님의 아들 - 하나님의 아달), 총독 대신에 사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후 1887 년, 한글로 된 최초의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를 출판했는데 보통 『로스역 성경』이라고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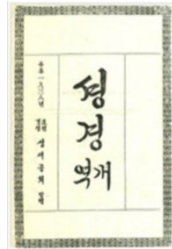
2. 구역(舊譯)의 탄생

A.A. 피터스는 시편의 일부를 번역한 최초의 구약 한글성경 『시편촬요』(1989)을 펴냈다. 이후 구약의 각 편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모여 1911년 『구약전서』로 출판되었다. 『신약전서』와 『구약전서』를 구역(舊譯)이라고 한다.



3. 구역(舊譯)의 개정작업

1912년 구역을 개정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역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38년 『성경개역』이 출판되었다.



1952년 발표된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다시 한 번 성경을 개정해 1961년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을 만들었다.

4. 표준새번역과 새번역

공동번역에 대한 외면과 개역 한글판의 수정에 필요한 상황에서 대한성서공회의 주도로 현대어와 존대어를 사용해 1993년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을 만들었다. 이후 2001년 『표준새번역 개정판』이 나왔고, 현재는 『새번역 성경전서』로 출판되고 있다.

5.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대한성서공회는 개역한글판 성경의 어려운 한자어, 잘못된 맞춤법과 문법, 장애인 차별용어를 수정해, 1998년 현재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펴냈다.

(출처: 바른미디어, 대한성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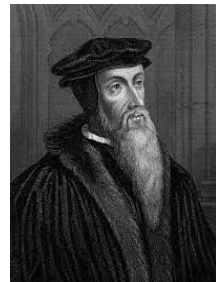
성도칼럼 書評: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는 히틀러 독재의 어두운 먹구름이 질게 드리워지던 시대에 씌어진 작품이다. 칼뱅이 이끌던 종교혁명의 기치 아래에서 신정통치되던 제네바를 배경으로 전체주의적 신앙에 희생된 세르베투스과 카스텔리오라는 두 신학자를 다룬다. 저자가 살아가던 1930년대 역시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앞서던 때였고, 홀로 깨어 광야의 소리가 된 자는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시작하던가 침묵하기를 강요받던 시대였다. 그렇기에 400년이라는 간극에도 불구하고 슈테판 츠바이크는 두 사람에게 깊은 공감을 느낀 듯하다. 저자는 두 신학자가 겪어야 했던 비극의 배후 인물로 칼뱅을 저격하고 있다. 책의 내용이 다소간 편파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변명이나 사설은 덧붙이지 않겠다. 눈물자국이 말라붙은 편지처럼 독재를 향한 울분이 곳곳에 얼룩져 있으며 학자의 유일한 무기인 냉철한 논리로 항변하면서도 고난 앞에서 취할 크리스천의 자세에 대한 신앙고백이 들어있다.

장 칼뱅:

타협을 모르는 완고한 이상주의자로 그려진다.

금욕주의에 바탕을 둔 비인간적인 근면성이 독이 되었으며, 스스로의 지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곧 위험한 칼날이 되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향해 거침없이 휘둘러졌다. 안타깝게도 그 칼은 눈이 멀어 있었고 용납이라고는 몰랐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정되었고



모든 것을 정형화된 규범에 맞추기를 강조하는 신정주의적 종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선봉에 있던 그가 자신이 비판하던 구 종교가들의 정책을 취합하며 닳아가는 모순을 보인다.

미겔 세르베투스:



그의 소박한 등장부터 한 마리 짐승처럼 연기에 그을려 화형 당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실 새 없이 놀랐으며 아픈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다. 정죄의 잔혹성, 탐욕의 어두움, 열정의 광신화, 그리고 비열한 공모. 그 어떤 것으로도 미화될 수 없는 범죄의 현상이었다. 그의 돈키호테적 호기심과 투박한 신앙에 대한 공감이었을까. 인문학적 소양과 믿음을 지녔음에도 처세에 능하지 못했던 대가로 주어진 참혹한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게 된다.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

해방신학과 참여신학, 칼뱅의 이론에 부분적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에 대해 차분히 반박하며 학자로서의 양심을 죽기까지 지켜낸다. 자유를 잃은 토론 통제의 현장은 질식한 진리로 인해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힌놈의 아들 골짜기와 하등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고, 독자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설사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죄가 될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집단 광기를 띠는 독재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관용(톨레랑스 Tolerance)’이라 주장하여 훗날 낭트 칙령(1598)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소위 믿음의 경륜이 있다는 이들을 향해 저자는 끊임없이 묻고 있다. 그대는 타인을 편협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우월감을 채우고 있는가. 이만하면 관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넘어져 있는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선에 가까이 갈 수 있을 뿐 결코 그 성화의

길을 완벽히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부족한 인간으로서 누구도 타인의 믿음을 정죄하거나 나와 다른 견해를 함부로 멸시하면 안 되는 이유다.

어쩌면 내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진리가 세상을 흔들고 화목을 무너뜨리는 광풍은 아닌 건지.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높아질수록 그림자는 짙어져 가고 공의는 무너져 폐허로 변한다. 영악한 폭력은 정치의 힘을 빌려 자신의 뜻을 이루는 대신에 상대는 함구하도록 강요한다.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자들의 자조가 도시를 짙은 회색으로 덮을 뿐이다. 악은 더한 악을 부르며 더욱 교묘한 통제로 변질되고 공동체는 공포 속에 침묵하며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자유를 배제한 율법주의의 무생물화. 형식주의는 생명을 산 채로 굳어지게 위협하고, 가식의 증양은 점차 자라나 목구멍을 막고 심장을 멈춘다.

증오의 칼끝은 결코 지치는 법 없이 목표물을 정확히 겨냥한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거짓 참소와 자비 없는 조롱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극단의 분노가 가장 먼저 파멸시키는 것은 바로 광포자 자신이다. 내면의 감정은 압력술 안에 갇힌 증기처럼 부글거리다 때가 되면 주체 없이 강렬한 힘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자신이 그려 낸 장 칼뱅을 통하여 이 비극을 극명하게 묘사해 내고 있다.

이견을 표명하는 자들을 참지 못하고 내지르는 포식자들의 광기어린 증오를 견딜 수 있는 방패는 오직 '관용'으로 정제된 '신앙인격' 뿐이다. 깊은 물처럼 고요하게 있어 요란한 비명을 내지르는 그들을 견뎌야 한다. 반박은 오직 그들의 환부, 선하지 않은 양심과 변질된 논리를 노려야 한다. 증기를 도려내는 칼끝처럼, 상하고 변한 부분만 미워하되 생명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야 하는 예수의 '길'이다.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가 걸었던 바로 그 좁고 험난한 길.

-최은영 집사

원 제: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출판사: 바오
지은이: 슈테판 츠바이크
옮긴이: 안인희
출판일: 2009년 5월 4일
쪽 수: 304쪽
구입처: 교보문고나 Yes24 에서 eBook 가능
(교회 도서부에서 대여가능)



『빛나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김섭리 목사 발행처 탬파새빛교회

편집장 박혜영 집사 편집인 곽봉선 집사 • 안지연 자매 • 조현숙 집사

Address 6018 N Highland Ave, Tampa, FL 33604

Website <http://nlct.org> Tel: (813)239-0213

